트럼프의 변덕, 미 군사개입 확대에 시장 경계심 확대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중동전쟁 영향과 네 마녀의 날 영향 변동성 확대

- 미 증시는 DOW -0.96%, S&P500 -1.51%, NASDAQ -2.01% 하락. 나스닥은 고점대비 10% 이상 하락한 조정국면 진입
-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, 선물·옵션 및 개별주식선물·옵션 동시 만기일로 장중 변동성 확대. VIX +11.3%. 인플레 우려에 국채금리 급등, 달러인덱스 99.5 로 상승. 금 -0.7%, 은 -2.2% 약세
- 글로벌 IB 는 11 월 중간선거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조기에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우세. 다만, 전쟁 장기화시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가능성에 증시 충격 가능하다고 언급

진정보다는 확전 가능성에 WTI +2.3%, 브렌트유 +3.3%

- 이라크가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 이후 유가상승폭 확대
- 이란과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, 미 국방부가 중동에 2 천명대 규모의 해병대를 추가 파병한다는 보도. 앞서 트럼프대통령이 부인했던 지상군 투입 계획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
- 베어드 로스 메이필드는 지상군 투입으로 사태 악화시 앞으로 몇주간 에너지인프라 관련 소식 하나하나에 시장이 집중하며 유가,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장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
- 21 일 트럼프 대통령 "48 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주요 발전시설을 타격" 경고. 이란은 적국 연계 선박 외 나머지 선박 통항 허용 입장

고유가 우려에 금리 상승, 연준 인사들은 비둘기파 발언

-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10Y 4.392%(+10.9bp), 2Y 3.894%(+6.1bp). CME FedWatch 에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한편, 인상 가능성 상승. 지난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에 인플레 우려가 언급되며 긴축 우려 자극된 영향
- 반면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용 경계에 따른 연내 인하 시사. 보우먼 부의장을 비롯, 이번 회의에서 동결로 의견을 바꿨던 월러 이사 역시 노동시장이 계속 약해지면 다시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라 발언
- 한편 이번주 주요 기업 실적이나 이중책무(고용, 물가)지표 일정 부재해 전쟁 전개에 따른 시장 주목도 높을 예정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RM	ARM	+2.0%	HSBC가 투자의견을 '비중축소'→'매수'로 두 단계 상향하고, 목표주가를 $90→$205로 대폭 상향하며 주가 강세. 동사를 단순 스마트폰 중심 기업에서 AI 서버 CPU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재정의하며,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있다 분석
SMCI	슈퍼마이크로컴퓨터	-33.3%	엔비디아 AI 칩 탑재 서버의 중국 밀반출 혐의로 주가 폭락. 공동 창업자 포함 3인이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미국산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 수출하려 한 혐의로 미 정부에 기소됨. 공소장에 따르면, 이들은 제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이 포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를 중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. 다만, 회사 자체는 이번 소송의 피고로 명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됨
YSS	요크스페이스	+19.2%	4Q25 실적 발표. 손실 규모가 컨센에 비해 축소되며 주가 강세. CEO는 국방부와의 프로젝트 진척 및 성공적인 위성 배치 성과를 강조. '26년 매출 가이던스 $545M~$595M으로 제시하며, 이 중 70% 이상이 이미 확정된 수주 잔고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 가시성 높음. 다만 지속되는 영업 적자 및 현금 흐름 압박은 단기적 해결 과제로 잔존
PL	플래닛랩스	+25.5%	4Q25 실적 발표. 매출과 EPS 모두 컨센 상회, 사상 첫 연간 FCF 흑자 달성. 최대 실적 기록에 주가 강세. 기말 수주잔고는 $900M로, YoY +79% 증가. 더욱이 엔비디아와의 AI 엔진 협력 및 구글과의 우주 데이터센터 파트너십 진행 중임에 주목